

한옥마을 · 첫마중길서 '한복오감 in 전주'

전주시, 문체부 '한복문화주간' 공모 선정

10월부터 셋째 주간에 운영... 전시·워크숍

토크콘서트·플래시몹 등 체험·공연 행사 진행

문화와 관광으로 세계와의 승부에 나선 전주시가 3년 연속으로 한복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한복문화주간 행사를 연다. 특히 문화교육·체험, 전시, 마켓, 투어, 공연·패션쇼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행사로 꾸미기로 했다.

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 한복문화주간' 공모에서 선정됨에 따라 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 오는 10월 셋째 주간에 전주한옥마을과 첫마중길 권역에서 한복문화주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한복문화주간은 시민과 여행객에게 한복착용문화를 장려하고 향유함으로써 전통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의 한복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시는 오방색의 비빔밥에서 영감을 받아 '한복오감 in 전주'를 주제로 한복을 보고, 즐기고, 먹고, 사고, 배우는 등 전주한복을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

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개막행사와 한복 전시 및 마켓, 한복 업사이클링 워크숍, 전통공연, 토크콘서트, 플래시몹, 춤비린 등 1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과 임문자, 마니아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시는 또 기존의 패션쇼와 체험행사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탈피해 전시와 마켓, 투어 분야의 프로그램을 신설함으로써 행사의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한복문화주간 운영을 통해 한복의 일상화를 돕고 한복문화 선도도시로서 더욱 발전하는 것은 물론 전주를 대표하는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6년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한복다올마당을 운영해왔으며 초등학교 한복교육 사업 등 다양한 한복문화 활성화 행사를 진행해왔다. 또한 2018년에는 한복문화



지난해 열린 '2019 한복문화주간'.

주간 개막도시로 선정돼 행사를 추진했으며 지난해에는 한복문화주간 운영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우리 민족이 사랑하고 즐겨 입었던 한복을 일상화

할 수 있도록 전주만의 특별한 한복문화주간을 만들 것"이라며 "한복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한복문화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새일센터

17일부터 온라인 취업상담실 운영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윤애 센터장) 전북광역시·전북여성새일센터는 17일부터 온라인 취업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취업상담실은 취업 전문 상담사의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통해 성공적인 취업으로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특히 온라인상 단순한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실시간 이뤄져 보다 빠른 취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온라인취업상담은 분야별 전담 취업상담사 배정 → 취업상담 진행 → 취업상담 종료 순으로 진행되며, 자녀양육이나 방문이 어려운 여성들에게는 화상식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온라인취업상담실은 센터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윤애 센터장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온라인취업상담실은 경력단절여성과 구직 희망 여성들에게 취업에 대한 열의를 담아 내놓은 사례 중 하나"라며 "센터는 앞으로도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기획으로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지난해 구직자 9,043명 발굴, 구인처 1만2,369명 발굴, 통틀어 4,482명 취업을 연계했으며 온라인취업상담실과 별도로 전문 취업상담사가 상주해 구직자 대상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jwec.kr)나 취업지원팀 063)254-3610 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한복의 도시' 도약 계기 마련

남원시, 올해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9월부터 추진

남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가 주관한 '2020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한스타일 중심도시, 한복의 도시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 4억원(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을 지원받아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한복관련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남원시는 이번 공모에서, 한복문화주간사업과 한복문화 지역거점 사업 두 분야에 지원해 7개 시군 중 유일하게 두 가지 유형에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남원시가 지원한 분야는 한복진흥센터에서 매년 10월 한복주간에 추진해 온 '한복문화주간사업'과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한복문화 지역거점 사업' 등 2가지 유형이며, 이번 공모에서는 광한정인(廣寒亭人)을 주제로 다양한 한복활성화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광한정인은 광한투를 찾은 한복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으로, 시는 광한투원과 남원예촌 등 전통한옥이 밀집한 10만m²의 원도심에 지리산 풍류1번지 남원만의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한복활용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9월부터 한복문화주간이 있는 10월까지 한복문화거점인 예루원을 중심으로 한복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는 상류층의 품류 콘셉트 패션쇼와 전시를 열 예정이며, 남원예촌 문화마당에서는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한복체험프로그램 등 총 10



여개의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한복전문 콘텐츠 '예루원' 과도 적극 연계할 방침으로, 한스타일 지원 단계별 도입을 위해 남원예촌 내 부지 3,165m²에 연면적 827.07m² 규모로, 한복전문콘텐츠관 예루원을 조성 중에 있다.

남원시는 예루원을 이번 한복문화주간에 일부 개방할 계획이며, 예루원을 스튜디오 등으로 변화시켜 앞으로 한복관련 전시, 체험, 셀프 파티존, 포토존, 교육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2021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현재 남원시 관광과장은 "시는 이번 한복문화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세계무대에 한복의 아름다움과 남원을 소개하는 등 남원관광문화 콘텐츠를 더욱 다변화하는 등 한스타일 중심도시, 한복의 도시 남원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20일 '토요국악플러스' 공연

단원들이 직접 무용 등 선보여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매일 셋째 토요일에 선보이는 '토요국악플러스'를 오는 20일(토) 오후 3시 예원당에서 개최한다.

토요국악플러스는 국악 초보자부터 애호가들을 위해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친숙한 레퍼토리라 쉽고 친절한 해설로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국립민속국악원 단원들이 꾸미는 무대로, 사물놀이, 민속음악, 무용, 단막창극,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된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류기형 예술감독의 새로운 감각과 연출로 각색된 단막창극 춘향가 중 '사랑가'는 그동안 일반적인 무대에서 만나본 춘향가의 이야기가 아닌 무용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무대언어로 풀어내고, 방자와 향단 역할을 맡은 무용수들은 자신만의 화려한 몸짓을 선보이며 그동



안 시도 되지 못한 과감한 무대를 펼친다.

그 외 신명나는 사물놀이의 삼도풍물가락, 신쾌동류의 거문고산조, 남도민요의 새타령, 무용으로 부채춤과 설장구춤 등 다양한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공연관람은 사전 예약제(선착순 100명)로 예약은 전화(063-620-2324) 또는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